

# 4·3 길을 걷다

제주 4·3 유적지도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함께 걷는 4·3길  
내일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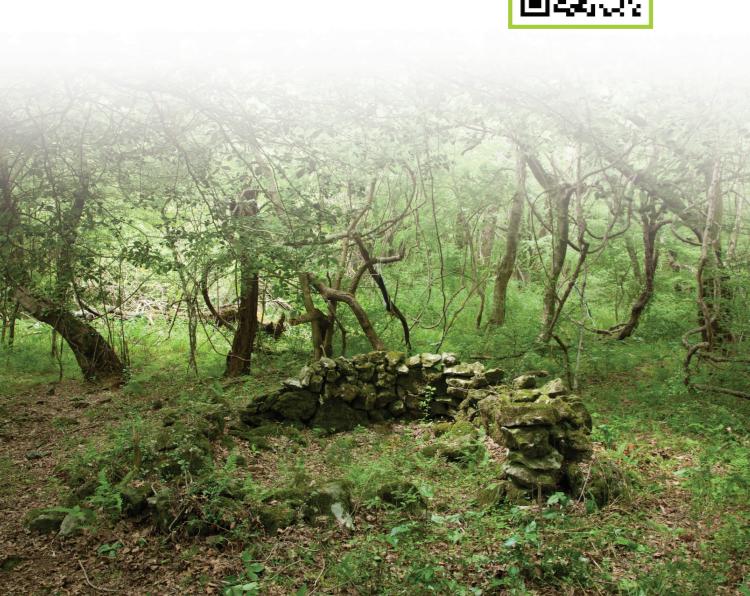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064)710-8454, 8452
- 안덕동광리 복지회관 064)794-8722
- 남원의구리 복지회관 064)764-0185
- 북촌 너본승이 4·3기념관 064)783-4303
- 금의리사무소 064)796-6368
- 가시리사무소 064)787-1305

## 4·3 유적지 좀 더 알고 싶으세요?

4·3 아카이브를 방문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와 위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43archives.or.kr



### 관덕정



관덕정은 1448년(세종 30년) 모사 신숙정 때 군사훈련 목적으로 세워졌다. 1947년 제28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군人们이 빠져나온다. 경찰의 밭포로 4명의 희생자를 발생하고 경찰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상 조우의 민관공파이가 일어났고 이후 수많은 도민들이 이 곳 경찰서에 걸려와 고문취조를 당하거나 구금됐다.

상도2동 관덕로 / 중앙사거리에서 공항 방면 300m 지점

### 주성공장 엣터



1934년 일제에 의해 설립된 동양학식주식회사 제주주정 공장은 해방 전후 제주도의 주요한 신업체였다. 주성 공장 창고는 4·3 당시 수용으로 활용되었다. 1949년 불, 귀순공작으로 주민들이 귀순하면서 경찰서사나 군부대로부터 인계되는 주민들을 이곳 주성공장 창고에 수용했다. 혹독한 고문과 열악한 수용 환경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았다.

간접동 일환로 / 제주항여객선터널 및은편 주유소 및 현대미파 주변

### 정뜨르 바비장 (4·3 유해발굴지)



현재 제주국제공항이 이곳은 4·3 당시 최대 학살터였다. 1948년 12월 말부터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지역 주민들을 끌어다가 총살, 임무장했다. 그리고 1949년 10월에는 249명의 군법수사판 사형수를 총살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는 4·3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을 예구수송했다가 이곳에 집단학살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곳에서 4·3유해발굴 사업이 진행되 388구를 발굴했다.

옹립동 유통일 서애안로 / 제주국제공항 내 북동쪽 평지

### 꽃나루민자리와



어도구는 중신간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4·3 당시 소재되었다. 범민 자리와, 열류와, 지름과, 고도리와, 뜸, 맘풀, 상수모, 활터동의 7개 자연마을로 형성된 2구는 1948년 11월 23~25일 3일간 소개하는 명행화전제 제주이 너본승이 초토화작전이 벌어진 폐지로 변했다. 현재 7개 자연마을 모두 북촌지역에 해당하는 채 남아있고 다수 주민들은 그에 신설된 산명동에 거주하고 있다.

어도중학교에서 서쪽 200m 징당 삼거리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400m 이동한 후, 우측 시멘트길로 2km 정도 가면 꽃나루가 보이는 우측 농로 150m 지점,

### 학살터 학원동 비화동



하귀리 학원동 비화동 앞밭에서는 1948년 12월 학원동 주민과 소개인 36명이 학살됐다. 이 날 학살 전 일산 부를 벗어들여 뛰어 꽃나루에 매달아 놓고 경찰 3명이 총에 대검을 끊고 마구 쫓았다. 최근 임신부 학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순례 행렬이 이어지면서 마을에는 당시의 꿈쩍였다. 상황을 떠올리기 싫어 꽃나루를 베어내고, 마을 회관을 구웠다.

학원동길 / 하귀리 학원동 마을회관

### 학살터 다랑쉬굴



세화리 다랑쉬굴은 1948년 하도리 종달리 주민 11명이 피살되어 살다가 벌컥이며 학살당한 곳이다. 경찰별대는 이 굴을 발견하고 주민들에게 나을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나오지 않자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고 오른쪽으로 학살했다. 1999년 유해 11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굴이 발견되어 4·3 친성기념 목소리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다랑쉬굴 / 다랑쉬마을 표석에서 동쪽길로 300m 지점

### 학살터 삼갈호름



삼갈호름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모슬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의 예비김속자들이 집단 학살로 친살했다. 이곳에 살은 1950년 8월 20일 새벽 2시에 한라암입구 및 무릉지역에 구금했던 63명, 새벽 5시경에는 모슬포 절간 고구마 청과에 구금했던 132명이 해병대 제3대대에 의해 집단 학살됐다. 최근 학살터 주변을 정비하여 위령공원을 조성했다.

상모리 송악 관광로 / 모슬포 고등학교 지나 사계리 방향으로 가다 / 송악산 가는 길' 안내판으로 진입 후 이곳에서 '삼갈 호름' 안내판을 따라 이동

### 백조일손자지



첫일오름에서 학살된 132명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이 집단묘지는 학살 64주년인 1966년 10월 15일에 성되었는데, 수습 당시 서운의 사신 구별이 어려워 빼내를 대충 맞추어 인정했다. 때문에 '백할이아버지 한 자손'이라는 뜻의 백조일손자지(百孫子之孫)로 이름이 지어졌다. 4·3 희생자들을 모신 집단묘역 중 가장 큰 묘역이다.

상모리 송악 관광로 / 모슬포 고등학교 지나 사계리 방향으로 가다 / 송악산 가는 길' 안내판으로 진입 후 이곳에서 '백조일손자지' 안내판을 따라 이동

### 한수기곶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

무릉 인향로 53번길 / 정자와 지나 임야암식 연못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을, 읍내 11호스

한수기곶은 무릉2리인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4·3 당시 대량생과 함께 주민들 흥보대에 무사히 소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신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곳은 한때 무장대가 근거지로 이용했다.